

〈全國圖書館巡禮〉

# 南山 圖書館이 되기까지

崔 昌 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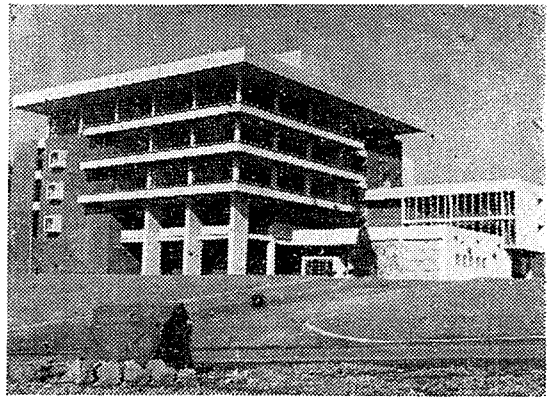
## 1. 緒 言

十里나 떨어진 곳은 「우—」하는 高喊과 함께 두너지고 말았다. 뒤에서 일부러 밀어버린 것이다. 은職員은 零下 10도가 더되는 추위에서 목을숙여가며 다시출을 잡아 주어야 했다. 여기저기서는 입에 담지 못할 惡談 形言키 어려운 怪聲이 連發한다. 이것을 두고 可謂 修羅場이라 이름 하리라. 새벽 4시 따뜻한 韓國모급 제대로 못마시고 달려와 높은담장을 뛰어넘고 곤한잠을 자는 宿直員을 깨워서 待機票를 얻어가지고도 몇시간 더 苦生해야 入館의 榮光을 찾아하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어찌도 오늘도 繼續해야 했다. 이렇게 몇時間 싸우고 나면 疲困하여 脈이 다 빠지고만다. 그렇다고 來日에는 曙光이 비치는 것도 아니다. 도저히 생각도 못할 엄청난 돈이 들어야 圖書館다운 圖書館을 지을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서 이곳만이 버림받은 孤兒가 되었을까 나는 高位行政家의 無關心을 탓하기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數年前 A. I. A. 의 Asheim博士가 來館하여 여러가지 質問 끝에 마지막으로 “무엇이 第一急하고 必要하냐” 하였을때 나는 서슴치않고 한마디로 “近代化된 施設”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專門職과 資料가 마련되었다고 하여 허허벌판에서 圖書館事業을 할 수 있겠느냐”고 反問하였다. 書庫와 一般閱覽室밖에 없는 그나마 비좁고 一部 危險狀態에있는 老朽한 建物이 허허 벌판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나 나의 宿望이 成就될 날이 豫告없이 노크하였다.

## 2. 新築經緯

1963年 6月 어느날 當時의 市長 尹泰日將軍이 建設局長以下 關係官을 帶同하고 巡訪하였다. 이 뜻하지 않은 訪門은 職員들을 緊張시켰으나 建設局長의 對話에서 要約하면 뜻밖에 圖書館의 發展의 移轉計劃인 것이다. 小公洞所在의 老朽한 建物과 地를 賣却하여 南



〈서울市立南山圖書館全景〉

山 鐘턱에 國際水準에 達하는 現代式 圖書館을 建設하자는 것이다. 每日아침 閱覽席하나 차지 하려고 아우성치며 앞을 다투는 閱覽者와 싸워야만했던 擔當者의 아득한 어둠속에 한줄기 밝은 曙光이 비추기 始作하는 것을 역력히 느낄수 있었다.

오직 이곳만이 버림받은 것같은 孤獨感에 그래도 한오라기 希望속에 忍耐과 苦難을 말없이 접어야만 했던 나이기에 이날이 있기를 얼마나 고대하였나. 그나마 小規模의으로 豫算이 許諾하는 範圍에서 施設改善策을 研究하고 實行에 着手하려는 때였다. 나의 머리는 여러가지 생각으로 整理되지 않았다. 小公洞에 있는 南大門圖書館을 그대로 두고 따로이 圖書館을 하나 더 新築한다면 더욱 理想的이 아닐까 그러나 그것은 南大門圖書館의 事情과 서울市의 豫算事情을 모르는 理想論으로 實現可能性이 稀薄한것으로 判斷하였다. 왜냐하면 小公洞의 圖書館은 木造建物인데다가 年輪도 60餘年을 거듭 하였으니 그 以上の 慘相을 傍觀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財政上 難關은 10餘年을 두고서도 根本的인 改造를 못하였으니 이 機會에 中央地에 있는 비좁은 오막살이를 팔아서라도 좀떨어져 있을 망정 空氣 좋고 展望 좋은 觀光公園地帶에 마음껏 활개칠수 있는 洋屋을 짓는 것이 더 現實的이다. 理想과 現實은 妥協할줄 알아야하며 現實을 通해 理想은 實現되는 것이다.

市長 指示에 따라 平素머리에 그렸던 理想型과 專門家들이 말해준 機能別構造等を 總合하여 새로운 圖書館은 最少限 10年을 내다보아 새로운 機能을 發揮할수 있도록 設計되어야 한다는 輪廓과 이에 對한 詳細한 計劃書를 作成하여 期日內에 提出하였다.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데는 勿論 切迫한 事情도 있었겠지만 몇달뒤에는 民政移讓이라는 國家的인 大事가 놓여있어 이와 같은 圖書館史에 빛날 一次計劃에 조금의 差舛이라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時間은 促迫하고 形式과 節次는 複雜하며 技術的인 纖細性은 加一層 내

가슴을 조바심 하게했다. 多幸히도 일은 豫定대로 進行되어 同年 8月未까지 建築設計 懸賞募集을 完了하고 9월 3일에는 수많은 作品을 對象으로 斯界權威者로 構成된 審査委員會에서 審査가 끝나 中區 獎忠洞 2街112番地 居住 李海聲氏의 作品을 當選作으로 決定하고 全體設計를 委囑하였다. 11月 21日에는 指名競争入札을 實施한 結果 大韓電拓公司 李漢相氏에게 落札되어 11月 25日 뜻깊은 起工式을 보았다. 1年을 넘는 工事期間中 나는 틈있는대로 出張하여 일의 進行을 督勵하였고 모든 職員도 한사람 빠짐없이 다녀오게했다. 허허벌판과 같았던 이곳에 「메머드」 建物이 層을 거듭 할때는 몇병의 쓴燒酒로나마 祝盃하고야 배겼다. 일이 豫定대로 되어 竣工을 눈앞에 두었을때는 責任의 過重함에 잠못이룬때도 하루이틀이 아니었다. 해는 저물어 번거로운 移徙를 해야했다. 무슨일이 있어도 1964年안에 移徙를 해야만한다. 1964年안에 移徙를 못할때에는 어느意味에서 全體韓國의 圖書館事業은 1年이 遲延되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7萬餘卷의 圖書를 順序를 어기지 않고 옮겨놓는 일도 普通일은 아니었다. 모든 職員은 한편으로 閱覽者의 뒤치닥거리를 해야했고 한편으로는 쌓인민지를 마셔가며 헌책을 묶어야했다. 日曜日도 國慶日도 없었다. 每日저녁 9時를 넘어야 집으로 갈수 있었다. 肉體勞動을 하게되니 배도 쉬 고팠다. 아침에는 무거운 몸도 풀 사이없이 出勤해야했다. 맑고밝은 圖書館에 오직 圖書館人으로서의 使命感이 없은들 누가 그苦役을 當할 것인가 또하나의 困境은 移轉에따른 豫算獲得問題였다. 教育委員會의 豫算은 學校教育費 爲主이기 때문에 社會教育費는 第1後順位에 들게 마련이다. 그런 形便이니 아무리 큰 建物에다 現代式 施設을 가추었더라도 그것을 活動하는 施設로 하는데 必要한 資金의 供給이 圓滑치 않고서야 바뀌없는 自動車와 무엇이 다르랴.

나는 南山圖書館의 早速한 開館이 全體韓國圖書館事業에 미치는 影響을 생각하고 市廳으로 教育委員會로 關係者를 찾아 1964年內에 移轉해야함을 說得시키고 移轉에 必要한 經費獲得에 온갖 精誠을 다하였다. 그러나 圖書館事業의 門外漢들과 妥協하는데는 아슬아슬한 고비가 한두번이랴. 어떤때는 1964年內에 移轉計劃은 完全히 拋棄하는 形便으로 後退하였다. 그러나 꾸준한 精誠과 說得은 마침내 移轉에 充分한 資金의 供給을 받게 되었으니 처음計劃은 差跌없이 進行될수 있었다. 날은 점점 추어왔다. 그러나 날은 아직 그리 추운 날씨는 아니다. 聖誕節까지는 大部分의 일은 끝내야 한다. 多幸히 눈도 내리지않아 移徙하는데 天氣로 苦辛하는 일은 없으니 이것도 南山圖書館을 爲하여 배풀어준 神의 保佑이리라. 우리 職員一同은 完全히 移徙가 끝난

1965年 1月 4日 祭官을 招請한다 떡을 한다하여 地神에 對한 告祀로 敬虔한 儀式을 가추었다. 南山圖書館의 永遠한 繁榮과 圖書館界의 飛躍을 爲하여 빌고 또 빌었다. 開館式은 1月 27日로 決定되었다. 開館式前에 모든 開館準備가 끝나야한다. 너무나 促迫한 時間이다. 舊圖書館의 도깨비 살림같은 古物을 늘어 놓을수도 없다. 그렇다고 되는데로 할수있는 일도 아니어서 走馬加鞭의 酷使도 서슴치 않았으니 지금도 職員들에 對하여 未安한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1月 27日 午前 開館式 直前까지도 開館準備는 進行되고 있었다.

### 3. 開館式

1965年 1月 27日 午後 2時 開館式을 알리는 나팔소리는 온長安을 울려주었다. 간밤에 내린눈은 아름다운 南山風景을 한層 더 곱게 해주었다. 壇上에는 尹天柱 文教部長官, 尹致暎市長, 金元圭教育監, 閔珪珪圖協會長 其他內外貴賓이 자리잡고 말뚝히 치워진 잔디밭에는 全國에서 모여든 圖書館人을 비롯하여 수많은 來賓이 이날을 祝福해 주었다. 젊은 男女中高生의 樂隊와 合唱團은 希望과 기쁨에찬 그날의 感激을 더해주고 그처럼 모진 추위와 暴雪을 아랑곳없이 數千里길을 멀다하고 南山圖書館의 開館式에 參席하여 주신 貴賓과 여러 圖書館人의 嘿일수없는 精誠은 一平生 잊을 수 없는 感激을 膺賜해 주었다. 特히 朴大統領께서는 貴重한 圖書를 寄贈해 주셨고 新築圖書館에 對한 一般의 關心도 큰바되어 寄贈圖書가 前例없이 還至하였다.

### 4. 新築圖書館의 施設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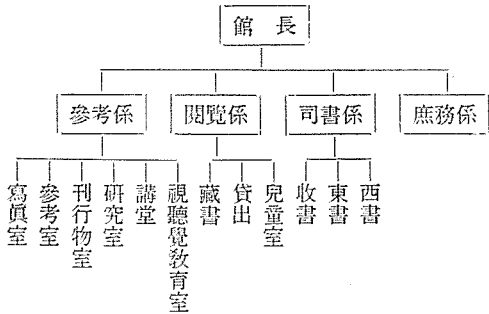
總工事費 約1億원을 投入하여 新築한 새로운 圖書館은 施設規模에 있어서도 上記와 같이 國際的으로 遜色이 없는 公共圖書館이거니와 奉仕機能에 있어서도 從來에 없었던 現代公共圖書館으로서 大部分의 施設을 가추어 社會教育을 理念으로한 奉仕機關으로서의 使命을 다하고저한다. 即 收容能力을 말하는 普通座席도 從前의 約 2.5倍인 1,400席이 거니와 從來에 없었던 開架式參考閱覽室, 刊行物室, 視聽覺教育室, 特別研究室, 展示音樂集會를 兼한 小講堂等의 施設을 가지고 있다. 從來와 같은 工夫房을 止揚하고 視聽覺資料를 통한 奉仕를 꾀하는 한편 前近代의인 奉仕로부터 積極的인 奉仕活動을 이룩할수 있도록 마련하였고 其他 自動車文庫活動, 寫眞室, 印刷室, 消毒室을 마련하여 施設을 가추어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의 最大規模로 名實相付한 首都서울의 標準的인 公共圖書館을 指向하고 있으므로 이후로도 積極的인 協助와 繼續된 指導 鞭撻을 바라마지 않는다. 現在 施設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建坪 2,800坪 閱覽室, 參考閱覽室, 定刊物室, 視聽覺教育室.  
座席 1,550坪 講堂, 特別研究室 16室.

5. 運營組織

南山圖書館은 現在 定員 73名으로 舊圖書館에의 29名에 比하여 2倍 나된다.

參考, 閱覽, 司書, 庶務 4個係로 나누어져 3級甲 1名, 3級乙 2名, 4級 8名, 5級이 21名 其他가 機能職 및 勤員으로 編成되어 있다.



6. 맺는 말

끝으로 몇가지 나의 平素所信을 簡單히 밝히고 글을 맺으려한다.

(1) 教育의 2大支柱의 하나인 社會教育部分의 跛行性을 免하지 못하는 限 後進性의 脫皮는 遙遠한 것이 다.

우리나라 國民의 大部分이 子女教育에는 熱狂的이나 自己自身을 教育하는 社會教育部門에는 全혀 無觀心하다는 點이다. 사람은 一平生 工夫하고 教育하여야 되는 것이다. 비록 배운다고하는 뜻에서 뿐만 아니라 매 마른 世情에서 餘暇를 善用하고 豊富한 教養과 리크레 이션의 所有는 生活를 活氣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社會教育 特히 公共圖書館에 對한 指導層의 認識不足, 消極性, 無觀心은 公共圖書館을 오늘과 같은 荒無地로 만들었다. 施設面에서 解放前보다 質과 量에서 얼마나 나아졌으며 圖書館을 보는 마음은 그 고무한思想 官僚的 思考方式이 얼마나 退治되었는가 左遷機關, 養老機關視하는 그릇된 버릇은 없어졌는가. 나는 아직도 高位當局者의 圖書館觀에 對하여 疑心을 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多幸히 우리 圖書館人의 끊임 없는 努力으로 圖書館法, 同施行令이 햇빛을보고 一部大學에서 專任職司書를 養成하게 되었으니 公共圖書館에도 徐徐히 曙光이 비치기 始作했다고 생각된다.

(3) 財政面에서는 아직도 아무런 方策이 없어 寒心할 따름이다. 아무리 오늘의 南山圖書館같은 現代式 施設을 갖추었다하더라도 現在의 租稅制度로 보아 急進的 發展을 꾀하기는 어려우며 겨우 現狀維持에 堪치지 않나 걱정이 다. 經濟開發에 總力を 傾注하여 이에 餘念이 없는 우리나라 現實에 비추어 어려운 일이겠으나 教育의 跛行性을 面하고 보다 튼튼한 百年大計를 꾀하자면 社會教育의 啓發없이는 砂上樓閣이 될 것이니 이에 對한 一大革新을 提言한다. 우리나라 現實로는 무리한 感이 있으나 이와같은 飛躍된方法이 아니고는 너무나도 뒤늦은 社會教育을 正常化할수 없기 때문이다. 即 社會教育稅를 住民에게 賦課徵收하자라는 것이다. 그 理由는 社會教育은 自己自身을 爲한 것이기에 그 施設의 마련은 全體住民의 힘만이 큰힘이되고 根源이 되기 때문이다. 以上 몇가지 簡單히 所信을 披瀝하였으나 나는 南山圖書館 誕生이 契機가 되어 서울市民으로 하여금 아니 全國民으로 하여금 各階各層의 指導層으로 하여금 公共圖書館에 對한 從來의 認識을 一新하고 關心을 새롭게하여 全國各地에 이와같은 公共圖書館이 誕生된다면 南山圖書館 誕生의 참된 意義가 있으며 이 나라 社會教育發展에 以上 더한 多幸은 없는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서울市立南山圖書館長)

市內에 계시는 團體會員 諸位에게

本協會에 設置된 配付函에 圖書가 滿函이 되었아오니 早速히 引受하여 가시고 每月 一回씩은 꼭 協會에 들려서 配付函 圖書를 引受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事 務 局